



Original Article

간호대학생의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의 매개효과

지영주^{ID}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Older Ad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Images of Older Adults and Their Behaviors toward Older Adults

Youngju Jee^{ID}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Youngju Jee, jeeyoungju@kyungnam.ac.kr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s of older adul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images of and behaviors toward older adults.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38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7 to June 1, 2025,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ayes' PROCESS macro Model 4. **Results:** The mean scores were 83.29 ± 10.52 for images of older adults, 48.23 ± 5.97 for perceptions of older adults, and 23.33 ± 4.60 for behaviors toward older adults. Images of older adult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perceptions of ($r = -.63, p < .001$) and behaviors toward older adults ($r = -.38, p < .001$). Perceptions of older adul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behaviors toward older adults ($r = .50, p < .001$) and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of and behaviors toward older adults (indirect effect = $-.12$, 95% confidence interval = $-.18$ to $-.06$).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students' behaviors toward older adults are influenced not only by emotional images but also by cognitive perceptions and interpretations of aging. Therefore, nursing education programs should include experience-based and perception-enhancing strategies to promote positive behaviors toward older adults.

Keywords: Aged, Attitude of Health, Behavior, Nursing Students, Mediation Analysis, Personnel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건강 문제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1].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간호사의 노인 관련 인식과 행동은 노인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2].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노인 환자와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전문직으로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실제 간호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인 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의사소통의 위축, 돌봄의 소극성, 노인 환자와의 심리적 거리감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는 궁극적으로 노인간호의 질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3,4]. 반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공감은 치료적 관계 형성과 적극적인 간호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특히 간호대학생은 예비 간호사로서 임상실습과 교육과정을 통해 노인 환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노인 관련 인식과 행동 양상은 향후 임상현장에서의 노인간호 수행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2,5].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의 노인 관련 인식과 행동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노인간호 역량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이미지는 개인이 노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인상과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에 대한 인지와 행동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6]. Levy의 고정관념 체화 이론(Stereotype Embodiment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형성한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이후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수록 노인 환자에 대한 회피적 행동이나 소극적인 간호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긍정적 이미지는 노인간호에 대한 관심과 수용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8].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단순한 정서적 반응만으로 결정되기보다 대상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가치 판단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9,10]. 즉, 노인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노인행동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노인에 대한 인식 과정을 통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인인식은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인지적 이해와 평가를 의미하며, 이는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11]. 특히 간호대학생의 노인인식은 교육 경험, 임상실습 경험, 노인과의 접촉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되며, 이러한 인식은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노인간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의존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 노인 환자에 대한 소극적 간호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노인을 존중과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치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3,11]. 이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사고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핵심 기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개인의 신념과 인지가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9], 이는 노인인식이 노인행동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노인행동은 노인을 대하는 실제적 반응과 행동을 의미하며, 간호 상황에서는 노인 환자에 대한 존중, 의사소통 태도, 돌봄의 적극성 및 상호작용 방식 등으로 구체화된다[12]. 노인행동은 단순한 태도와 달리 실제 임상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노인간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노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효과적인 노인간호 교육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간호대학생의 노인이미지, 노인인식, 노인행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거나 변수 간 단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2,6,8].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이미지 또는 노인인식이 노인간호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였으나[5,11], 노인이미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노인행동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한 매개효과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행동은 단순한 정서적 반응만으로 형성되기보다 대상에 대한 인지적 해석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9,10], 노인인식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는 것은 노인행동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Allport의 접촉이론(Contact Theory)은 대상 집단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편견 감소와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13,14]. 간호대학생은 교육과 임상실습 과정에서 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므로, 이 시기의 노인 관련 경험은 향후 노인간호 행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이미지, 노인인식 및 노인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노인간호 교육 방향 설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노인 관련 행동 형성 메커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노인간호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노인 관련 태도와 행동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노인간호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이미지, 노인인식 및 노인행동 수준을 파악한다.
- 2) 간호학과 학생의 노인이미지, 노인인식 및 노인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3) 간호학과 학생의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의 노인이미지가 노인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최대 예측변수 수를 10개(선행변수 8개, 독립변수 1개, 매개변수 1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크기($f^2 = .15$)로 설정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18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40명을 목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자료 2부를 제외하고 총 138부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5년 5월 7일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 내용, 참여의 자율성 및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노인인식, 노인이미지, 노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성장한 곳, 조부모 생존 유무, 현재 노인과의 동거 유무, 과거 노인과의 동거 경험 유무, 평소가 같이 지내는 노인의 존재 유무를 포함한 총 8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 노인인식

노인인식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Park [11]의 연구에서 사용한 고정관념 및 인식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노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 가족관계, 은퇴 및 경제적 측면 등과 관련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 중 ‘노인은 전통이나 관습을 중히 여긴다.’와 ‘노인은 자식들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는다.’는 긍정적 의미의 문항으로, 역코딩하여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적응 및 대인관계 영역 .71, 가족관계 영역 .40, 은퇴 및 경제 영역 .60으로 보고되었으며[11],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 이었다.

3) 노인이미지

노인이미지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 [15]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고 수정·보완하여 Park [6]의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이미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신체적 이미지, 심리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의 세

가지 분석 유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석 유목에 해당하는 형용사 28개를 선정하여, 양극단에 반대 의미의 대응 형용사를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는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까지 1점에서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85$ 였으며[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4) 노인에 대한 행동

노인에 대한 행동은 Won [12]이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개인이 노인을 대하는 실제 행동에 근거하여 각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Won [12]의 연구에서 .82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4$ 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이미지, 노인인식 및 노인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노인이미지, 노인인식 및 노인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여 5,000회의 재표집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노인이미지, 노인인식 및 노인행동 수준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38명이었으며, 성별은 여성이 124명(8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성은 14명(10.1%)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67 ± 2.63 세였으며, 최소 19세에서 최대 33세였다. 종교는 무교가 108명(78.3%)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16명(11.6%), 천주교 8명(5.8%), 기독교 4명(2.9%), 기타 2명(1.4%) 순이었다. 성장한 지역 규모는 중소도시가 102명(7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20명(14.5%), 농어촌 16명(11.6%)이었다.

조부모 생존 유무는 '있다'가 118명(85.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없다'는 20명(14.5%)이었다. 현재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는 2명(1.4%)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인 136명(98.6%)은 동거하지 않았다. 과거 노인과의 동거 경험은 '있다'가 48명(34.8%), '없다'가 90명(65.2%)이었다. 평소 가까운 노인이 있는 경우는 68명(49.3%), 없는 경우는 70명(50.7%)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노인이미지 점수는 평균 83.29 ± 10.52 점이었으며, 점수 범위는 61점에서 106점이었다. 노인인식 점수는 평균 48.23 ± 5.97 점으로, 최소 32점에서 최대 58점이었다. 노인행동 점수는 평균 23.33 ± 4.60 점이었으며, 점수 범위는 17점에서 40점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Levels of Elderly Image, Perception of Older Adults and Elderly Behavior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 $\pm$ SD	Min	Max
Gender	Male	14(10.1)	21.67 $\pm$ 2.63	19	33
	Female	124(89.9)			
Age					
Religion	Christianity	4(2.9)			
	Catholicism	8(5.8)			
	Buddhism	16(11.6)			
	Other	2(1.4)			
	None	108(78.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Levels of Elderly Image, Perception of Older Adults and Elderly Behavior (N=138) (continued)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Min	Max
Size of area where raised	Metropolitan Area	20(14.5)			
	Small or Medium-Sized City	102(73.9)			
	Rural Area	16(11.6)			
Living grandparents (Yes/No)	Yes	118(85.5)			
	No	20(14.5)			
Currently living with older adults (Yes/No)	Yes	2(1.4)			
	No	136(98.6)			
Past experience of living with older adults (Yes/No)	Yes	48(34.8)			
	No	90(65.2)			
Having close relationships with older adults	Present	68(49.3)			
	Absent	70(50.7)			
Elderly image			83.29 ± 10.52	61	106
Perception of older adults			48.23 ± 5.97	32	58
Elderly behavior			23.33 ± 4.60	17	40

2. 노인이미지, 노인인식 및 노인행동 간의 관계

대상자의 노인이미지와 노인인식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63, p<.001$),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8, p<.001$). 또한 노인인식과 노인행동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50, p<.001$), (Table 2).

Table 2. Relationships among Elderly Image, Perception of Older Adults, and Elderly Behavior (N=138)

Variables	Elderly image	Perception of older adults	Elderly behavior
	r(p)		
Elderly image	1		
Perception of older adults	-.63(<.001)	1	
Elderly behavior	-.38(<.001)	.50(<.001)	1

3.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노인이미지가 노인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36, SE=0.04, \beta=.63, t=9.3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9.3%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7.89, p<.001$).

반면, 노인이미지가 노인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5, SE=.04, \beta=-.12, t=-1.25, p=.213$). 그러나 노인인식이 노인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B=.32, SE=.07, \beta=.42, t=4.40,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25.4%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2.93, p<.001$).

간접효과 분석 결과, 노인이미지가 노인인식을 매개로 노인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2이었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95% 신뢰구간(LLCI=-.18, ULCI=-.06)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노인인식이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의미한다. 노인이미지가 노인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B=0.17, p<.001$), 노인인식을 통제한 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0.05, p=.213$). Bootstrap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노인인식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총효과는 -.17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95% CI: -.24, -.10), (Table 3).

Table 3.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Older Ad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Image and Elderly Behavior (N=138)

Direct effect	B	SE	β	t	p	95% CI	
						LLCI	ULCI
Elderly image → perception of older adults	-.36	.04	-.63	-9.38	<.001	-.43	-.28
R=.627, Adj. R ² =.399, F=87.89, p<.001							
Elderly image → elderly behavior	-.05	.04	-.12	-1.25	.213	-.14	.03
Perception of older adults → elderly behavior	.32	.07	.42	4.40	<.001	.18	.47
R=.504, Adj. R ² =.254, F=22.93, p <.001							
Indirect effect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Elderly image → perception of older adults → elderly behavior				-.12	.03	-.18	-.06
Total effect				-.17	.04	-.24	-.10

CI, Confidence interval; LLCI,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이미지는 노인인식 및 노인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인식은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노인 관련 행동이 단순히 정서적 이미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되기보다, 노인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이미지는(140점 만점) 총점 평균 83.29점, 문항평균 2.9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노인이미지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 중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게 치우치기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양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년 세대가 노인을 존중과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의존성과 사회적 부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12,13,16,17]. 또한 이는 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노인 관련 교육 경험 확대의 영향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1].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노인을 소극적이거나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11,12], 이러한 인식은 임상현장에서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4,16-18]. 따라서 간호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노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전략이 요구된다[14,19].

노인인식은 총점 평균 48.23점, 문항평균 3.01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인식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미하므로, 대상자들의 노인인식은 뚜렷하게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고정관념이 혼재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노인을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노화와 관련된 의존성이나 사회적 역할 감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친밀감을 보이지만 인지적 차원에서는 부정적 편견을 일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11,13,20].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이 여전히 청년 세대의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7,13,21].

본 연구에서 노인이미지가 노인인식을 통해 노인행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Levy의 고정관념 체화 이론(Stereotype Embodiment Theory)을 지지한다. Levy는 개인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내면화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지와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7].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노인이미지가 긍정적인 노인인식을 형성하고, 이러한 인식이 노인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내면화된 이미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노인행동 점수는 평균 23.33점으로 나타났다.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부정적임을 의미하므로,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행동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노인을 대할 때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 행동을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동은 단순한 태도뿐 아니라 임상경험, 교육환경, 실제 노인과의 접촉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3,6,13,22]. 특히 노인 환자와의 의사소통 경험이나 노인 대상 실습 경험은 노인행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2,7,8], 노인과의 긍정적인 접촉 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19].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노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17,23].

본 연구에서 노인이미지와 노인인식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이미지가 인지적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5,11,12,16]를 지지한다. 또한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학생일수록 노인을 대하는 행동 역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8,22]. 노인인식과 노인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실제 행동에서도 부정적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3,4,11].

특히 본 연구의 핵심 결과는 노인인식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즉, 노인이미지가 노인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노인인식을 통제한 이후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노인행동이 단순한 정서적 반응만으로 형성되기는 보다는, 노인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가치 판단 과정을 거쳐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3,7,9,10,14]. 다시 말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와 행동 사이에서 인지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9,10,24]와 유사한 결과이며, 노인 관련 교육에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뒷받침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개인의 신념과 인지가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한다[9]. 본 연구에서 노인인식이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거쳐 형성된다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과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간호 교육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노인 관련 교육은 주로 노인에 대한 친밀감 형성이나 긍정적 이미지 및 태도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2,5,6,12].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정서적 접근만으로는 실제 행동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노화 과정과 노인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지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7,9].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지 재구조화 중심의 교육 모듈 개발을 통해 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노화 관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적용도 필요하다. 또한 세대 통합 활동은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14,19], 노인 체험 프로그램은 노화 과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25]. 더불어 지역사회 노인과의 지속적 교류 활동과 긍정적 접촉 경험은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3,15,26].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횡단적 연구설계로 인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접촉경험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론에서 거론된 Contact Theory와의 관계성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특성(조부모 생존, 동거여부, 동거경험, 가까운 노인 존재 등)이 잠재적 교란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추후 매개모형의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통제하여 영향력을 분석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의 학생들을 포함한 반복연구와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이나 임상실습 경험과 같은 추가 변수를 포함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노인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이미지는 노인인식 및 노인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인식은 노인이미지와 노인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노인행동을 결정하기보다는 노인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가치 판단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이미지와 노인인식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뚜렷하게 치우치기보다는 양가적이고 중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노인행동은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행동은 단순한 정서적 태도뿐 아니라 교육 경험, 임상실습 경험, 노인과의 접촉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노인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에 대한 친밀감이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준을 넘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노인간호 교육에서 인지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노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삶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세대 통합 활동, 노

인 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노인과의 지속적 교류 활동 등 실제적이고 경험 중심의 교육은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간호교육에서는 노인과의 직접적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관련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 관련 태도와 행동 형성 과정에서 노인인식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노인간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부분과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를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횡단적 설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사용함에 따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과 대학의 학생들을 포함한 확률표집 기반의 반복연구와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재연구와 노인과의 실제 접촉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Funding

None.

Authors contribution

All work was done by Jee Y.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25 Statistics on the Aged. Daejeon: Statistics Korea; 2025.
2. Kim JH, Son GR, Algase D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mong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34(7):1499-1508. DOI: 10.4040/jkan.2004.34.8.1499
3. Kim SY, Yang KM, Oh HE, Kim JS.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02;22(3):21-36.
4. Neville C, Dickie R, Goetz S. What's stopping a career in gerontological nursing?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014;40(1):18-27. DOI: 10.3928/00989134-20131126-02
5. Kwon YH, Yeun EJ.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7;13(3):285-292.
6. Park HS.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image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7. Levy BR. Stereotype embodiment: A psychosocial approach to ag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09;18(6):332-336. doi: 10.1111/j.1467-8721.2009.01662.x
8. Kim MH.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elderly.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1;5(4):113-126. DOI: 10.12811/kshsm.2011.5.4.113
9.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991;50(2):179-211. doi: 10.1016/0749-5978(91)90020-T
10. Fishbein M,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1. Park, H. J. (2004). *Cognition of the elderly in aging society : Intended for an adult in twenties and thir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 Won YH. Development of the Behavior toward the Elderly Scale. Unpublished instrument manual. 2004.
13. Allport GW.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14. Pettigrew TF, Tropp LR.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6;90(5):751-783. DOI: 10.1037/0022-3514.90.5.751
15. Sanders GF, Montgomery JE, Pittman JF, Balkwell C.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84;3(1):59-70.
16. Palmore E. Facts on Aging Quiz: A review of findings. *The Gerontologist*. 1980;20(6):669-672.
17. Palmore E. The Facts on Aging Quiz.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18. Harris DK, Changas PS, Palmore EB. Palmore's Facts on Aging Quiz: A review and meta-analysis. *Educational Gerontology*. 1996;22(3):193-205.
19. Kim CG. Effects of contact experience and aging anxiety on attitudes toward elderl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3;22(1):21-31.
20. Lee MY, Yang NY. Influence of knowledge and contact experience about elderly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14(4):2025-2037.
21. Kochera AS. The baby boomers are coming: Caring for aging America. Washington, DC: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2002.
22. Hughes NJ, Soiza RL, Chua M, Hoyle GE, Macdonald A, Primrose WR, et al. Medical student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and willingness to consider a career in geriatric medicin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008;56(2):334-338. DOI: 10.1111/j.1532-5415.2007.01552.x
23. Courtney M, Tong S, Walsh A.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00;6(2):62-69. DOI: 10.1046/j.1440-172x.2000.00192.x
24. Chen AMH, Brown R, Archibald N, Aliotta S, Fox PD. Best practices in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between olde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2015;13(1):4-25.
25. Cummings SM, Adler G, DeCoster VA. Factors influencing graduate social work students' interest in working with elders. *Educational Gerontology*. 2005;31(8):643-655. DOI:10.1080/03601270591003382
26. Bousfield C, Hutchison P. Contact, anxiety, and young people'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s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010;36(6):451-466. DOI:10.1080/03601270903324362